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5~2015.11.11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비디아릴라베지	불광출판사
3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윤희근·김현준·효림	민족사	8	아담법사-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정토
4	공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5	이야기를담은사찰법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10	황제내경과생명과학	남희근	부키



암자는 심신을 맑게 하는 '영혼의 세탁소'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암자로 가는 길 3
글 정찬주
사진 백중하
열린책들 펴냄
1만 5천원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자리도 늘어나고 일상사가 분주해 지는 계절이다. 이럴 때일 수록 삶의 번잡을 떨치고 마음 편한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시기다. 일상의 탈출은 삶에 짜든 노고를 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충전의 달콤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산속 외진 곳에 숨은 듯 자리잡고 암자를 찾아보며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까. 호젓한 암자는 대부분 신도가 없어 가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금은 외롭고 쓸쓸해 산중의 때문이 아닌 고독이 가랑잎처럼 뿔뿔이 날아가는 곳이다.

작가 정찬주는 전국 유명암자의 순례기를 시리즈로 엮었다. 근 20년간 전국 암자를 찾아다니던 덕분에 '암자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시비거는 이가 없을 정도다.

저자가 이번 제 3권에서 추천하는 암자는 전라도 경성도 충청도 경기도 등 20여 개 낱집 된다. 바다를 가슴에 담아가라고 말하는 돌산 향일암과 같은 유명 암자를 포함해 바다안개 쉬어가는 섬산길 거름도 송광암, 매화향기가 일품인 가야산 희랑대, 회초리 같은 계곡의 찬물을 자랑하는 회양산 동암, 마음으로 쌓아올린 남매담이 있는 계룡산 상원암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199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이래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온 <암자로 가는 길>은 2004년 첫 번째 책이 개정판으로 출간됐고, 2010년에 두 번째 책이 출간된 바 있다. 이제 첫 출간 후 거의 20년이 흘러 세 번째 책이 출간됨으로써 대한민국 암자 기행문의 대표작 <암자로 가는 길>이 전 3권으로 완간된 셈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 반딧불이처럼 지혜의 등불을 이어오는 암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위치 정보 및 풍부한 서지자료, 수행자들의 일상과 고승들의 일화들, 작품사진들을 담아 작가 정찬주 특유의 성찰적인 글로 녹여낸 이 책은 작가의 몇 십



경주 남산 보리사 전경. 왼쪽의 석가여래 돌부처님은 '눈 속의 눈'으로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전국 34군데 암자 순례한 단상 묶어 사진 100여 컷, 현장미 돋보이게 해줘 1997년 첫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년에 걸친 순례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처들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다.

<암자로 가는 길>시리즈는 1권서 52개의 암자를, 2권은 32개를, 3권은 34군데의 암자를 소개함으로써 총 118개 전국 암자들에 대한 방대한 순례기이자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사를 총괄하는 역사자료, 귀중한 사진자료로서 한국 출판계에 또 하나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책은 절판된 <산중암자> 개정판으로, 작가의 신심을 키워주던 호남과 영남의 암자들에 대한 글을 추가했으며, 사진은 최근의 풍광으로 모두 바꾸었다. 1권의 사진작가 김홍희, 2권의 사진작가인 유동영에 이어 3권의 사진은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에 관련된 사진 작업에 매진 중인 백종하가 작가가 찍은 1백여 컷이 실려 세계적 암자의 고요한 풍광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안심 법문에 들게 한다. 또한 이번 <암자로 가는 길3>은 화려한 여행 안내서나 에세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문화를 향한 보다 깊이 있는 여행, 진정한 나의 분류를

찾는 고요한 여행을 잔잔히 권유한다. 세롭고 기발한 것들을 시도하는 용기와 모험심을 북돋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소박한 공간'에 기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채널들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국내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가끔은 미디어가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디지털 문명의 지식과 성과가 채워줄 수 없는 정신의 허기를 느낄 때 이 책은 분명 우리를 인적 드문 산길로, 구도자들이 밟아온 가파른 길로 안내한다.

산중 암자의 역할은, 마치 산골짜기 물의 소음이 맑은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 자체로서 저자 및 우리들을 위안하고 평정에 들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수행은 절에서 참선하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자신의 낯은 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열정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실한 수행에 다름 아니다. 이를 저자는 책에서 말한다. 녹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가르침과 절규로 소리 없이 메아리치는 암자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이 책 안에 펼쳐진다.

암자는 저자에게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시골서 홀로 농사짓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자 흐트러진 내면을 추스리게 하는 침묵의 자리이다. 그리고 가랑잎같은 고독을

친구삼아 자신의 질서를 지키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서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끼기도 한다.

구도자들의 정신적 분향과도 같은 암자의 전경뿐 아니라 법당과 선방의 구석구석을 소개한 이 책은 불교 신자들과 수행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기행 산문집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출가를 결심해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암자를 찾아 산길을 오르던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치 이 책이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출간되는 책이 아닐까도 싶었다. 아직도 내게 그때의 감성과 사유가 남아 있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다."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름 삼아 움이 돋듯 내면 어딘가에 새롭게 생겨난 것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나는 암자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과 수행자와의 인연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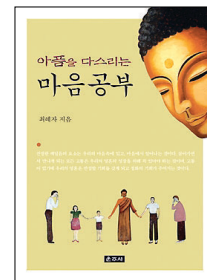
▲저자 정찬주 작가는?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글쓰기로 오랜 기간 명상적 산문과 소설을 발표해온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글을 쓰는 작가로 살던 그는 자연을 스스 삼아 진정한 '나'로 돌아가기 위해 저자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늘 마음속에 그리던 남도 산중에 집을 지어 들어앉았다. 썬터사에 근무한 십수 년 동안 법정스님의 책들을 읽어 권 만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타운 사제지정을 맺었다. 스님은 작가를 재가제자로 받아들여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내렸다. 산중에 있는 듯 없는 듯 무지렁이 농부처럼 잊힌 듯 살면서 자연의 섭리를 좇아 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슬비처럼 시비에 집착하는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의 '이불재(耳佛齋)'라는 집 이름에 담겨 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다불> <만행> <대 백제왕> <아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산문집 <암자로 가는 길>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선방 가는 길> <돈황 가는 길> <나를 찾는 붓다 기행> <정찬주의 다인기행>, 그리고 어른을 위한 동화 <눈부처> 등이 있다. 1996년 행정문학상, 2010년 동국문학상을 받았다

벼랑 끝서 만난 '마음공부' 과정 소개

아름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전작 <아름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서 살짝 드러낸 것처럼, 저자는 30대 후반부터 80을 앞둔 지금까지 불치의 병과 함께하고 있다. 전작이 아들에게 유혹처럼 남기는 마음공부의 살림살이었다면, 이번 책은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내놓은 공부법이다. 간간히 풀어놓는 저자의 굴곡진 인생경과, 그 속에서 함께 깊어지는 마음공부의 과정을 읽어가노라면, 저자의 삶이, 저자의 의지가, 저자의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느껴질 것이다.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에서 흔히 듣는 말 중의 하나는 "내가 살아온 얘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가슴에 맺힌 게 많다는 뜻이다.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저자가 살아온 지난했던 삶, 즉 연좌제 때문에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이야기, 젊은 시절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야기, 결혼 얼마 후 청상이 된 이야기, 어린 아들과 외국에 나가 살아야 했던 이야기, 30대 후반에 찾아온 불치병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의 살아온 신세보다는, 고통 속에서 일구어낸 마음공부 이야기,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음공부 안내서, 불교공부 입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사성제, 팔정도, 업, 연기법, 삼법인, 계율, 위빠사나, 참선, 육바라밀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저자의 삶에 녹아들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내비치지 않는 성격의 저자로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자의 삶과 붓다의 가르침이 열거설기 엮이면서,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공부를 통해 바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고통을 벗어나 행복하기를!" 저자가 힘들고 힘들게 이 책을 쓴 이유이다.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한다. 어려움을 피해 달아나거나, 정제 모를 절대자에 의지하거나, 혹은 그에 맞서 싸우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불치병과 그로 인한 생활고로 고생하였지만 용기와 지혜로 버티며 살았다.

용기는 저자의 타고난 성품과 결혼 직후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세상에 어린 아들과 단 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이끌어낸 삶의 의지였다. 다행히도 그런 환경에서 그녀는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붓다

저자 변화시킨 일등공신, 마음공부 고통 안겨준 병도 삶의 동반자로

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바라보며 마음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저자를 지혜롭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행복'하다. 고통을 행복으로 승화시킨 마음공부의 내용을 이 책에 담아낸 것이다.

마음공부는 평생 고통을 안겨주던 병도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었다. 나이들고, 죽음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니 부족함과 불만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평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 붓다의 가르침을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이 그녀를 책상으로 이끌었다. 자신이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한, 팔과 눈물의 결정체가 이 책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성자의 삶 | 사회문화원 | 356쪽 | 정가 39,000원

참 스승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거울이 되어 주신 분... 청하 큰스님의 행장行狀과 역경歷程, 그리고 귀한 법문

생전의 수행처에 대한 수행담과 행장을 통하여 큰 스님의 깨우침과 그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자의 삶

청하큰스님의 모습은 맑은 햇살과 투명한 바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볼 때면 행복했습니다. 굳이 법문이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가 법문인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수행이 형상화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범명 그대로 맑아서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의 미소가 그랬고 어떠한 지리나 자유에도 걸리지 않는 삶이 그러했습니다. 스님의 정진 또한 한 치의 망념없이 순일한 것이었고 스님의 하심은 너무 맑아 눈이 부셨습니다.

- 법정 (전 조계종 총무원장)

목 차

하 서 - 읽어서 빛나는 청하 큰스님 / 법정 · 5
서 문 - 우리 시대의 큰 스승 / 도일 · 6
간행사 - 우리 곁에 왔다 가신 성자 / 혜승 · 7

제 1편 행장行狀

진리의 길 성자의 삶
거룩한 이, 태어나시다 · 13
출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다 · 20

좋은 벗(善友)들과 더불어 · 29
독거한처(獨居閑處)를 찾아 · 35
영생해탈의 길 · 41
위 없는 진리와 함께 · 52
정통법법을 펼치시다 · 57
하회중생(下化衆生) · 60
성문사 장건, 법 바퀴를 굴리시다 · 72
봉정암(鳳井庵)로 미주 포교에 오르시다 · 81
정토 세상을 위하여 · 92
사세(辭世), 세연을 정리하시다 · 114

열반에 드시다 · 122

제 2편 수행처 탐방

머물던 머무름없이
백암산 운문암 · 129
무인 해운사 · 137
두륜산 영도암 · 145
두륜산 진불암 · 상원암 · 149
두륜산 남미륵암 · 157
광주 추경사 · 161
지리산 백장암 · 165

지리산 금강대 · 173
백장암 벽송사 · 177
벽송사 두지터 · 185
오산 상암암 · 189
용문사 영불선원 · 백련암 · 197
남해 보리암 · 205
보리암 부소대 · 213
진주 두방사 · 217
장흥 기역산 능엄사(금선사) · 221
부산 해광사 · 225

강진 무위사 · 229
광명 성도사 · 233
월출산 상견성암 · 237
칠현산 칠장사 · 245
동리산 태안사 · 253
성통사 조선암 · 339

내방사 재흥 백련암 · 263
정통 탑산사 · 271
완도 범해사 · 275
미국 상보사 · 금강선원 · 279
지리산 칠불사 · 287

정화淸華 큰스님 말씀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淸華 큰스님 말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정화 큰스님 말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구입문의 : 총판 운주사 02)3672-7181~5